東亞日報 夕刊 昭和九年七月二十九日(日)

## 社說

### 살아야한다
### 분투하라, 이재동포여

一

비는 계왓습니다. [illegible] 四十만의 이재민과 七千만원의 피해액을 내인 미증유의 큰비는 그 무자비한 폭위를 이제사 거두엇습니다. 먹을것, 입을것, 경영하든일이 모두다 자최없이 [illegible] 나려가는 정든 [illegible]. [illegible] 이 광경에 [illegible] 그러나 모든것이 [illegible] 우리에게 남은것은 살아야 한다는 일입니다. [illegible]

二

재변에 [illegible] 다시금 살길을 [illegible] 구제는 구제대로 [illegible] 각각 자기의 [illegible] 정신으로써 [illegible] 하여야 할것입니다. [illegible] 우리가 살길은 다시 세우고 [illegible] 이라도 심어야합시다.

三

그러고 우리는 이번 재변에서 배울것을 잊지맙시다. 우리는 과거에 너무도 이런재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앗든가요. 산에는 나무가 없고 [illegible] 이제 새로 이룩하는 우리의 살림터는 다시 [illegible] 지반 우에 세우고 [illegible] 맹세합시다. 그리하야 아무런 힘이 덤벼도 넘어지지 않고 [illegible] 않을 만년대계의 계획을 세웁시다. 이러함으로써 이번 재변으로 하야금 [illegible]

■

다시 [illegible] 우리는 [illegible] 다 우리는 어떠한 재앙에든지 지지않는 신념을 갖고 [illegible] 분투합시다.

# 蔣氏新政策樹立次 廬山會議를開催
## 歐米派의國策을採用할듯
## 八月初旬頃에開催

【上海特派員發信】 國民政府의 內政外交에對한 新方針을 決定하기爲하야 軍事委員長 蔣介石氏는 八月初旬廬山에서 重大時局會議를 開催하기로決하고 行政院長 汪精衛, 內政部長 黃紹雄, 顧維鈞公使, 顏惠慶大使氏等 中央要人들의 來參을要請하엿다 今回 廬山會議의 議題는 一, 對日外交 二, 華北問題 三, 西南問題 四, 對歐米外交等 [illegible] 蔣氏는 [illegible] 歐米派의 [illegible] 國民政府의 [illegible] 對日 [illegible]

# 獨파펜公使에對하야 伊政府側은不滿
## 高等辯務官과같다고

【로마二十八日發聯合】 [illegible] 伊太利側은 [illegible] 公使 [illegible] 不滿의 意를表明 [illegible] 高等辯務官 [illegible]

## 死傷者 百四十二名 暴動事件으로

【[illegible]二十八日發】 [illegible] 死者七十八名 負傷者六十五名이라고 發表하엿다

## 天皇陛下 宮城에御還幸

【[illegible]東京電話】 葉山御用邸에 [illegible] 天皇陛下께옵서는 三十日의 明 [illegible] 午後二時 [illegible] 宮城에還幸하옵섯다

## 桑港大罷業畵報

【[illegible]】 太平洋沿岸大罷業에 發端한 桑港의總罷業은 去十六日以來 [illegible] 勞働爭議中에 [illegible]

# 伊事門委員 비大佐倫敦着

【倫敦二十八日發聯合】 [illegible] 伊太利 [illegible] 二十八日夜 倫敦에 到着 [illegible] 會議 [illegible] 하기로 되엇다

# 三五年難局과 廣田外相의政策
## 二大政略의準備工作

【東京電話】 廣田外相은 [illegible] 一九三五、六年의 難局을 [illegible] 一、軍縮會議에서 [illegible] 二、[illegible] 國際的地位의 確定 [illegible] 二十九日은 [illegible]

그러고 [illegible] 各方面에서 [illegible]

# 增稅調查에着手
## 藏相事務當局에命令
## 實現은結局困難할듯

【東京電話】 藤井藏相은 [illegible] 增稅計劃 [illegible] 一、公債消化의限度 一、增稅實行의 時期와 方法 [illegible]

# 政府古米拂下決定

【東京電話】 [illegible] 政府米拂下 [illegible]

# 未曾有凶作?
## 八、九月天候가憂慮

【東京電話】 [illegible] 七月初旬부터 [illegible] 凶作이 [illegible]

# 나치스殘黨을一掃
## 君主制를謳歌
### ◇黨員은全部逮捕

【[illegible]二十八日發】 [illegible] 死者 七十八名 負傷者 百六十五名

【[illegible]二十八日發】 [illegible] 나치스 [illegible]

# 墺國外務省에서 國內情勢發表

【[illegible]廿八日發】 [illegible]

## 故前首相葬儀

【[illegible]二十八日發】 [illegible]

# 陶器職工暴動 軍隊遂出動
## 戒嚴令도布告

【[illegible]廿八日發】 [illegible]

# 蘭印糖業勞働者 不平遂勃發
## 暴動鎭壓軍隊出動?

【[illegible]】 [illegible]

# 米、미州運轉手의 罷業形勢險惡
## 市內엔戒嚴令發表

【[illegible]二十八日發】 [illegible]

## 米國爆擊機 二週以內歸還

【[illegible]廿八日發】 [illegible]

# 武器輸出契約과 헐長官의言明
## 禁止令發布以前에것은相關없다

【[illegible]廿八日發】 [illegible]

# 루大統領會見 孫科氏는否認

【호노루루二十七日發聯合】 [illegible]

# 루大統布哇의 陸海軍完備를賛揚
## 廿八日布哇를出發

【[illegible]二十八日發】 [illegible]

# 佛獨間通商의 新條約締結

【[illegible]廿八日發】 [illegible]

## 日曜市場氣配

株式 [illegible]

| | | |
|---|---|---|
| 大新 | 九三七〇 | |
| 東新 | 四六六〇 | |
| 鐘新 | 三一三〇 | |
| 産業 | 三二八〇 | |

期米 [illegible]

綿絲 不變

| | | |
|---|---|---|
| 金銀◇ | 二〇片八分一 | |
| 留普 | 二九弗九〇仙 | |
| 米綿 | 三二〇 | 高 |
| 印棉 | 五五 | 高 |

## 米穀政策과 民政黨態度

【[illegible]東京電話】 [illegible]

## 橫說竪說

[illegible]

今日本紙四面


# ウテナ白粉

더할나위없어

天賦의麗質에
一層더魅力을加하야
爽然한美로
端裝해놓고야마는
白粉입니다!

一次의使用으로
그輕하게잘오르는맛과
땀에도삭지않는것과
品位잇는色갈과
魅惑的인그香氣로
이게第一이라고
어느분의嗜好에나適合하는
ウテナ白粉의品質입니다

肌色 濃肌色 健康色 白色 各色다 [illegible]

新製·粉의四色!

淡 オークル 一號
濃 オークル 二號
ブルン
ナチエレル

東京·本鄕 久保政吉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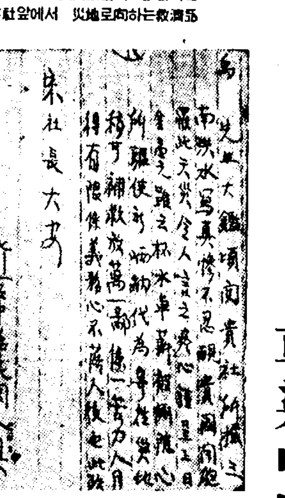
本社醫療隊救護班活動畫報 (右) 進永에서 第七隊 災民診察 (中) 梁山面貰谷里 災民救援에 歡喜하는 光景 (左) 龜洛北事里에서 주먹밥分給 (下) 本社앞에서 災地로向하는救濟品

# 民族과 階級을 超越! 人類愛의 同情總集中

## 銀幕面의 慘狀에 感觸 中國勞働者同情

### 草梁中國商人百圓出捐

민족관렴을떠나 인류애의결정을 우리는보앗다。二十八일 오후에 중국인 노동자들은 삼남의 수해가 막심하다는 소식을듣고 돈一원을 손수가지고 본사로 찾어와서 『귀사에서 촬영한 三남홍수 활동사진을 보오니 참혹하기 목불인견이올시다。만일 의구급이될가하와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눈물없이는 볼수없는 장면을 보엇다。남루한 의복을입고 매일매일 노동으로 겨우연명하며 천대받어가면서 생명을겨우 연속시켜가는 이동정이야말로 조선민족의 맘속에 길이감명을 주고도 남엇다。



(同) 先生大鑑頃閱貴社所撮三南洪水寫眞慘不忍睹實國同胞罹此天災令人言之痛心謹呈上日金壹元藉表杯水車薪雖屬無補聊以代爲手所得有限保養盡心不落人後也此段 宋社長大安 名中華民國人具 (사진은노동자들의동정문)

역시 이날 부산초량(釜山草梁)정에잇는 중국인 포목상일동、중국인상점 일동의 공동명충인 덕취화(德聚和)라는 공동이름으로 거출한 백원의 현금을 본사에 구제금으로 보내왓다。실로 우리는 이민족을초월한 감격한 동정에는 오로지 눈물없이는볼수 없엇다。

### 中國勞働者의 눈물나는同情

## 純情의 꽃!

### 나갈이 어린 재난 동무에게 八歲少女의同情金

「이것보세요、나갈이 어린동무로 큰재난들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만켓습니까。이돈을 보내여 불상한 그들에게 전하여 주세요」하고 돈七十전을 가지고 본사로찾어온 어린아가씨가 잇다。이아가씨는 시내 수표정(水標町)六十번지 강안라(姜安羅)로 표동공립 보통학교에 다니는 금년여덟살되는 아가씨다。아모 티끌이 없이 순결한 그의가슴속에서 울어난 이맛다운 정성!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격을 주는것이가?

(사진은 금 二十八일 아침에 본사를 찾아 온 강양)

## 병어리갖어온 六歲의少年

경성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 돈의동(敦義洞)八 김종한(金宗漢)이라는 六세되는 귀여운 아이는 벙어리를털고 본사를 찾저왓다。한푼두푼모은돈이 三十六전이엇는데 즉시재지로 보내주도록 맡기엇다。

## 童心의純情

### 입든의복 가저온 八세어린이 感激할同族愛의發露

【평양】 사선에 방황하며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를 위하여 감격아니할수없는 순정의발로를 여기저기서 보거니와 二十八일 본사평양지국으로 입든옷 쓰든모자를 재지에잇는 동무에게 보내달라고 十一세된 처녀와 八세된어린소년이 봇짐을 갖어왓다。그는 부내 항정(巷町) 이기호(李基浩)씨 따님 상순(相順)(一一)과 아드님 상옥(相玉)(八)으로서 저의들의 입든옷 十九점과 모자 一개를 가저온것이다。

## 井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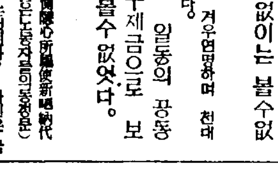
【시래인】 지난 十八일부터 二十四일까지 계속한 장마로 인하야 전북 정읍군(井邑郡)의 우량은 실로 백六十九미리에 달하며 이번의 수해참상은 군당국으로부터 조사발표한바에 의하면 죽은사람이 三명이오 가옥의 유실된것이 四十四무너지며 침수된 전답면적이 七천二백三十정보 매몰된 전답면적 六十三정보며 도로의 파손과 매몰이 二천七백十八미돌 교량의 피해가 三十六개소요 이재민 총수가 一천三백四十二인으로서 현재 당장의 구제를 요하는 호수가 二백二十五호에 달하는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다면 그손해액이 실로 二十五만八천一백三十七원이나 된다고한다。

## 京城車夫協會熱情

# 血汗의 結晶提供

### 푼푼이 모은돈 四十원을 가지고와서 「貴社의 壯擧에 感謝」

민족과 계급을 초월하야 눈물겨운 뜨거운 동정이 총집중 —三남방면의 대수재에 四十만이재민을 향하야 퍼처진 구제의손은 보도와 활동사진등으로 참상이 알려질때마다 급격하게 조되어 전조선이나전 아세아적으로 나가서는 세계적으로 구제의 함성은 외치게 되엇다。입은 의복이라도 벗어주고왓으며、신은신발이라도 대신신겨주고 왕면하는 보고나온 목격담을 듣고 의복으로 약품으로 현금으로 심지어 어린이들의 저축된 사랑의 결정이명 어린까지 재지동포를 위하야 기우려젓다。이민족적 장거는 실로 공전의 참경에 모인바어니와 재민들도 몸의의 재난들 맛난후에 나린동포의 감격한 동정의 구제에 감사의 눈물을흘리는 금번이 본사로 답지하고 잇는동이다。



右 李日鳳氏 左 宋憲常氏

二十九일아침 경성 차부협회(京城車夫協會)대표이일봉(李日鳳) 송헌상(宋憲常) 두분은 본사를 찾어와서 푼푼이모은돈 四十원을 내놓으며 「이번수해에 귀사의 필사적 활동을 감사하니다。우리는 아시다시피 가난하여 생각은 간절하지마는 어렵습니다。약소한것이나마 포들의 참담한 정상을 구하는데 보태어 써주십시오」하고 옷이라도 벗어보내지못하는것이 얼마나 안타갑운지 모른다고 말하고돌아갓다。

## 松汀千五百災民歷訪

# 救護班을熱狂歡迎

### 糧米、藥品分配에感泣

【송정리지국전보】 본사구호반은 二十八일오후에 송정리(松汀里)수해지인 도호리(道湖里) 도산리(道山里) 신촌리(新村里) 우산리(牛山里)등 五개동리로 본사기(旗)를 휘두르며 이재민 五백호 一천五백명을 일일히 방문하고 쌀 약품 장작등을 나누아주엇다。 이재민은 감격에 넘친 눈물를 흘리며 우리 동아일보덕에 목숨을 구하게되엇다고 열광적으로 동아일보 만세를 부르며 우리 구호반일행을 보내주엇다。

# 三南水災義捐金品

## 累計三千四百圓·救濟品六千點

▲金貳拾錢也 京城玉仁洞九八ノ二 裵武星
▲金七拾錢也 京城水標町六〇 姜安羅
▲金壹圓也 京城敦義洞三七 金港堂書店
▲金壹圓也 京城笠井町六 崔熙昌
▲金拾圓也 京城笠井町一四一 金璟煥
▲金五拾錢也 京城黃金町一丁目四九 金元淑
▲金四拾圓也 京城車夫協會
▲金拾五錢也 京城薪堂洞三三 李秉矩
▲金壹圓也 京城三嶋內 無名氏
▲金五拾錢也 仁川寺川二七 方王元
▲金六拾圓五拾錢也 仁川米穀商組合一同

內譯 [illegible]

▲金壹圓也 中華民國人具

▲金壹圓也 江原道金化邑前 李凡達
▲金貳圓也 永興邑 金浩榮
▲金五拾錢也 通川郡…小兒 金敎翊
▲金拾四圓也 京義線南川驛前 金壽玉

小計 (二十九日午後零時까지) 金壹百參拾四圓五錢也
累計 金參千四百五拾圓八拾六錢也

▲衣類十二件 仁川寺川二五 崔氏
▲衣類六件 同 申萬根
▲衣類四件 同 申永琦
▲衣類二十八件 京城…一三〇 黃貞姬
▲衣類五件 京城…一一三의一 鄭致三
▲衣類六件 同 申氏
▲衣類七件 同 鄭尹温
▲衣類二件 同 無名氏
▲衣類十件 同 梁福童
▲靈神丸五十包 平壤 永生堂製藥社

小計 (二十九日午後零時까지) 壹百參拾件
累計 六千七拾壹件

# 災後집掃除타가 一家五名이死傷

## 雪上加霜의 慘變!

【三浪津에서宋特派員發電】 二十八일 오후五시경 삼랑진낙동동(洛東洞)김영제(金映濟)는 가족五명을 데리고 침수된 자기집에물이 빠젓으므로 집에들어가서 소제를 하든중 집이문허저 五남밀양농잠학교 三년생동현(東鉉)(一八)은 압사를 당하고 다른가족들은 모두중경상을 당하엿다。

### 天氣豫報

低氣壓은 國境中部에 잇고 揚子江의 中流에도 弱한 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沿海州로부터 北東으로 퍼지고 잇다。 [illegible] 今明鮮 一般으로 흐리고 東岸 嶺東에는 小雨가 잇다。明日도 흐리겟다。 ◇第一時 [illegible] 昨二十八日 [illegible] 二三.七 [illegible]

### 訂正

[illegible] 朴命燦 [illegible] 大邱支局員 全在浩氏의 [illegible]

## 第一隊

# 麥島、德斗로分隊 八百名患者施療

【釜山에서 本社醫療班 第一隊朴醫師發電】 낙동강하류의 격랑을 무릅쓰고 부산의료반은 二十八일 일은아침 부산을 출발하야 대저면(大渚面)에 도착하야 두대로난호아 유피득(劉彼得)의사를 중심으로한 四명一대는 덕두(德斗)리에 출동하야 三백四十명의 의료를 마추고 의사이근(李根)씨를 수반으로한 五명一대는 맥도(麥島)리에 출동하야 四백五十명의 치료를 마추고 해늦게 피해지를 떠나고 돌아왓다。

# 堤防에避難民 飮料食糧難

### 德谷面의農作全滅

【초계지국전화】 낙동강연안에 덕곡면(德谷面)은 六、七十년내로 처음되는 홍수다。수위가 평시보다 약二十五척의 증수가되어 전부 [illegible] 파괴되고 유실등으로 전멸상태이다。각 관공서도 전부 침수되어서 군청원들은 서류운반으로 대혼잡을 이루고 이재민 五백五十여명은 동리앞 조그마한 언덕으로 피난중이나 식료품과 음료수문제로 위기일발의 형편이다。그리고 교통이 두절되어 정확한 조사는 아직 모르나 대개의 관측에 의하면 도괴가옥 三十호 침수가옥 백호 농작물은 전멸상태다。

# 집잃은 二千災民 生途가 莫然

청덕면(靑德面) 덕곡면(德谷面)등의 이재민의 [illegible] 당국에 [illegible] 도 집점 감수된동이므로 二三일후에는 형편이 [illegible] 다。

# 草溪被害

【초계지국전보】 금번낙동강수해에 잇어 초계(草溪)의 현재까지 판명된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田畓二千町步 ▲浸水家屋二〇〇戶 ▲流失家屋二六戶 ▲全壞 [illegible] 一五戶 [illegible] 에 달한다。 이재민 一천五백명은 음료수(飮料水)로곤란 [illegible] 고 잇다。

# 假屋과親族집에收容

【선산】 경북선산(善山)一대에도 홍수에 집잃고 갈곳없어 숙박소와 물가운데에서 주리며 보리죽으로 연명을 하여간다한다 본보에도 누보하엿거니와 군당국과 경찰당국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군내각면을 통하여 전반괴(全半壞)가옥이 大백여호에 달하는데 三천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에게는 위선응급책으로 연명을 하여간다는바 장래의 구제책이문제이라한다。

# 倒潰百卅戶

### 義城水害判明

【의성】 경북 의성군(義城郡)내의 이번 수재피해로 二十七일까지 판명된것은 농작물 피해면적이 一천八백二十七정보 [illegible] 산곡에으로 大보二 [illegible] 원이고 경작된 침수를 [illegible] 유실된 [illegible] 나되는데 [illegible] 다。 [illegible] 山面八戶 [illegible] 面一戶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 豐山一帶에麻疹猖獗 死亡兒童八十餘名
## 七월초순이래로 점점만연 現在患者는九十餘名

【함흥】지난 七월 초순이래로 함남 풍산군一대에는 마진(痲疹)이 유행하야 이미사망한 아이가 八十여명이고 전치된자 二백九十三명이며 현재환자가 九十一명으로 전부합하면 四백六十四명이 이병에 걸리엇다 한다.

## 濟生醫院의 奉仕的期間 十五주년기념

【신의주】배마(白馬)여전 제생의원(濟生醫院)에서는 동 의원 설립 十五주년을 맞어 이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오는 八월一일부터 하로는 전연 무료로 진찰시약하고 동일부터 三개월간을 진찰료 왕진료 충치(蟲齒)치료는 무료로 약가는 반액으로 한다는데 일반 환자는 다수 이용하기를 바란다 한다.

# 남을爲한犧牲
## 怒濤속의少年만救하고 自身은畢竟溺死
### 물에빠진 소년구하러 들어가 甲山普天面에얼린人情劇

【혜산】남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생명을 끈허버린 거룩하고 착된 인정극이 갑산 화전촌(甲山火田村)에 일어낫다. 갑산군보천면 이화리(甲山普天面梨花里)라는 빼사산밑 드메산골에 지난二十일 갑자기 나린 폭우에 강내물이 붉어서 다리가 끊기고 홍수가 낫는데 물건너편으로 장보러갓든 유윤수(柳潤洙)(二○)라고 하는 소년이 수영을하고 그냥 건너오다가 물결을 이기지못하야 격경 물에빠져 위기一발의 사경에 이르렀다 한다. 그참혹한 광경을 보고잇든 동리사람과 그소년의 친히되는 유남식(柳南植)이도 보고만 잇을뿐이고 그무시운 물결속으로 감히구할 마음도 미치못하엿는데 한동리사는 장표옥(張杓玉)(三○)씨가 五十간되어 되는 먼곳에서 보고 다름질하여와서 노도속으로 뛰여들어 전기소년을 붓들고 약六十간이나 떠나려가다가 사정없이 내려미는 물결을 이기지못하야 전기소년을 강가로 내밀게되니 동네사람들이 거저내어구하고 장씨는 노도속에서 헤매이다가 기진맥진하야 가족과 동리사람들의 아우성소리와 함께 수중고혼이 되고 말엇다한다.

전기장씨는 보천면내의 유지로 상당한 가산도잇을뿐아니라 해마다 귀리잡자나마 수十석씩 내어 화전민구제에 아끼지않엇고 남을 위해서는 평소에도 많은희생을해 오든사람이라 가족과 일반인사는 그의 뜻하지않는죽엄에 극히애통해한다고한다.

## 支局記念盃 來月中旬進呈

【아변】함남 아변(安邊)본보 지국에서는 지국설치기념으로 미려한 기념배를 지정하다하야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동안 여러가지 준비사정으로 연기되든 八월 중순경에 진정하리라 한다.

## 初等校長會議 咸南에서三日間

【함흥】함남 공립초등학교장회의를 지난 二十六일 부터 二十八일까지 三일간 함흥공립소학교 강당에서 개회하고 교수법 연구와 교안사용의 상황 향토조사와 향토재료 활용의 상황 농가갱생부락지도에 대한 협력 기타 실제문제에 대한 토의가 잇엇다는데 참석한 회원은 공립보통학교장이 一백十八명 소학교장이 三十一명이라 한다.

## 教役者修養會

【북청】함남 농회에 소속된 동북 시찰회(洪北視察會)에서는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홍원(洪原) 북청(北青) 풍산(豐山) 三군을 망라하야 八월 一일부터 一주일동안 신창(新昌)예배당에서 각예수교회 교역자 수양회를 개최한다는바 강사는 함흥 남부교회 목사 김형숙(金亨淑)씨와 기독신보사장 전필순(全弼淳)목사를 초빙하리라 하며 과목은 성경공부 전도강연 청년기도 등이며 기타해수욕등 자미잇는것이 많으므로 대성황을 예기하며 간부제씨는 준비에 대분망중이라한다.

# 爆藥暴發로 三幼兒重傷
## 장진강 수전공사장에서 ◇재갈줍든中慘禍

【장진】지난 二十五일 오후 二시경 함남 장진군 신남면 하갈(長津郡 新南面 下碣)장진수전공사장(水電工事場)인 전원제정(前原丁場)에서는 남포가 폭발 되어 유아 三명이 모두 중상을 당하야 생명이 위독케 되엇다한다. 그런데 생활난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다리고 가서 재갈을 줍는 부인들이 부지기수인데 한상자에 금六七전씩을 받고 작업하다가 금속에서 폭발되지않고 잇던 남포를 얻어가지고 놀았든 아이들이 그것이 위험품인줄을 모르고 세아이가 돌로 폭파를 시켜 보다가 현장에서 기절되고 중상을당하얏는데 부상된 아이는 최명학(崔明鶴)(男)(七)박영식(朴永植)(女)(七)이두전(李斗全)(女)(一)이라한다.

## 元山署에牛賊

【원산】주한다. 아변군 안변면 비산리(安邊郡安邊面飛山里) 조한균(趙漢均)집 고용인 이일봉(李一鳳)(二十六)은 주인집 구루마에다 안변군하이골에서 광석을실고 원산(元山)광업소에운반하고 돌아오는길에 때마침 부내장촌동(場村洞) 우시장(牛市場)에서 구루마는 우시장부근에 버리고 시가 백수十원되는 황우를 八十一원에 팔아가지고 도주하려든것을 동시장 팔리인 양지학씨가 수상이보고 즉시 원산서에 신고하게되어 그와같이 발각되엇다 한다.

## 曇天繼續으로 農家大憂慮

【북청】함남 북청지대는 약二개월간이나 계속한 장마에 농가에서는 보리와 감자가 벌서 전멸상태에 이르러 염려중이든바 벼농사까지 작황 장기로 발육이 좋지 못하야 지금도 매일 비가 나려서 금년 농작은 흉년을 난면이라 한다.

# 一門이作黨하야 一家族毆打
## 아이를 질책한것이 원인 被害者는告訴提起

【재령】황해도 재령군 삼강면 광탄리(廣灘里)권병화 권병진 김옥선(權秉化、權秉植、金玉仙)등 三명은 지난 二十七일 동리 이명상 이효상 이판영(李明相、李孝相、李判永)등외 三명을 걸어 구타상해죄로 재령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엿다한다. 이제 그원인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기 피해자 권병화(權秉化)집에서 먹이는 소를 뜰에다가 매여두엇는데 가해자 이문집의아이들이 소바를 끈허 남의집 곡식을 먹어버렷으므로 아이들에게 질책을 하엿든바 이것이 원인이 되여 자반하장격으로 지난二十三일 밤 전기가해자 이씨집 一문수십명이 작당을 하야가지고 곤봉으로 피해자 가족三명을 무수 난타하야 전신에 타박상을 당하엿을뿐 아니라 현장에서 졸도까지 되엇슴으로 가족들이 떠메엇다 여 피해자들은 방금재령병원(載寧病院)에 입원치료중이라는바 생명이 매우 위독하다하며 피해자들은 四주일 지나야 내여가지고 전기와같이 고소를 제기하엿다한다.

南鮮公普校內의託兒所

# 城津農組事件 公判또延期
## 피고가 七十九명에 달해 昭和六年에檢擧한事件

【나남】소화六년七월초순경에 검거된 성진농민조합사건 피고 김기하(金麒河)외 七十八명에 대한 공판은 八월초순에는 개정되리라고하든것이 무엇보다도 정식재판에 가 五十여개방으로 약二백매나 되어 호적(戶籍)재판장의 전인으로 조사하나 아직 그것을 보지못한 하였으나 여름휴가도잇어 아마九월중순경에나 개정되리라고 한다.

# 東津江治水不完全으로 農作物被害多大
## ◇改修問題를總督府에陳情 兩郡代表八名上京

【신태인】전북 정읍 김제(井邑, 金堤) 양군에서는 동진강의 치수공사가 불완전하므로 인하야 매년농작상 적지않은 피해를 입어오는 형편이며 금년에는 지난 번 비로 인하야 그연안의 약六천여정보가 전부침수되어 그피해가 우심하엿다 이전부터 누차 당국에 진정하여왓으나 우금껏 공사에 착수하지 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여오든 전기 양군에서는 금번에 또다시 조선총독에게 진정키위하야 정읍군에서 三인 김제군에서 五인 합八인을 파견키로 되어 二十九일밤차로 상경하게되엇는바 그씨명은 다음과 같다 한다.

井邑郡代表 柳寅烈(同郡甕北面長) 金顯善(同郡甘谷面長) 林鶴周(同郡泰仁面長) 金堤郡代表 姜東曦(全北道會議員) 鄭本英(金堤邑長)外三人

# 土疾菌防止코저 蟹醬으로販賣
## 조합 설치코 제조해 판매 坡州名産、年五萬圓

【문산】파주(坡州) 게(蟹)는 양주(楊州)와 같이 좋기로 유명한 특산만이아니라 년五만여원에 달하야 농가부인의 수입으로 많은도움이되는 터이나 토질균이잇다하야 식용과 매매를 금지중에 잇는 래八월一일부터 해금하게되엇으므로 군민의 경제에는 큰도움이되겟다한다. 게에 부착매개되는 토질균에 걸리는 폐디스토마를 방지하기위하야 파주군과 경찰서에서는 공동판매조합을 설치하고 파주명물의 게장을 맨들어 널리 판로를구하여 날로먹는 위험성을 없애고저 방금대책을 세우는 중이라한다.

## 龜城에疑問死 사인아즉미상

【귀성】귀성군 노동면 운흥동(龜城郡蘆洞面雲興里)에잇는 원몽학(元蒙學)(二○)은 지난 二十二일 갑자기 죽어버리엇다 한다. 그리고 밤에 귀성서에서는 공의를 대동하고 현장에출장하여 시체를 해부한결과 독약을 먹여죽인것으로 판명되엇는데 원인은아직 모르며 혐의자로 三인을검거하고목하 사실을 엄중취조중이라 한다.

# 製油社襲擊 五青年檢擧
## 질소회사의 적색 분자들 三名釋放、二名取調

【나남】지난 十五日경에 나남경찰서고등계에서 유정(柳井)주임이하 五六명의 형사대가 청진 제유회사의 공장지대에 자동차로 출동하야 청년五명을검속하야 나남경찰서에 유치하고 이래 엄중히취조하여보는바 탐문한바에의하면그들은 흥남조질공장에잇든 적색분자들로 청진공장지대에 잠입하야 잠동하려든것이 미연에 발각되것이라고하며 그중三명은 석방되고 二명은 방금 취조중이라한다.

## 黃海老會總會 신천문제유안

【재령】황해노회 임시총회(黃海老會臨時總會)는 예정과 같이 지난 二十六일 재령서부 예배당에서 목사 장로 二十여명이 회합하야 노회장 김태석(金泰錫)목사 사회로 열리엇는데 비부에 신천교회(信川敎會)분립사건으로 장내가 한참동안 소란하다가 결국 원만한 해결을 보지못하고 오는노회총회까지 유안하기로 결의하엿다.

## 라디오 明日프로 日曜月 JODK

### 晝間部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料理法、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 (一)浪歌 浪唄歌(二)雜歌 [illegible]

### 夜間部

▼零時四十分 뉴ー스
▼一時 野球試合實況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朝鮮豫選―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四時 뉴ー스、職業紹介事項
▼六時三十分 童話 (一)齊唱 저미소(二)同 소낙비(三)兄弟(三)獨唱 외나무다리(四)齊唱 무지개(五)獨唱 벌님(六)齊唱 달팽이(七)同 풀각시(八)獨唱 언니 旺新學院兒童 伴奏 金泰哲
▼六時五十五分 產業뉴ー스
▼七時三十分 뉴ー스、天氣豫報
▼八時 常識講話
▼八時三十分 俗謠 [illegible]

(一)愁心歌와염금(二)孔明歌(三)寒海歌(四)山念佛(五)난봉歌
▼九時 演說古談 黃山敎職의此一謎(一) 金芙蓉
▼九時三十分(東) 時報
▼九時三十一分 歌謠(一)春眠曲(二)乾坤歌 崔貞姬 金秋月
▼十時 뉴ー스、氣象通報、翌日프로그람發表、뉴ー스再放送

### 第一放送

▲午前六時ラヂオ體操▲六時三十分(大)スポーツ講座 フィールド(一)×大朝運動部員 ▲七時(東)ラヂオ體操
日米國際放送
▲七時二十五分(東京)國內アナウンス▲七時三十分=アメリカオレゴン州ポートランド大成丸(商船學校練習船)甲板上より中繼=(講演)(音樂)▲午後零時五分(謠曲)▲二時家庭講座 明治初期の社會相と朝鮮 奧山仙三▲六時お話 河童と海坊主(一)▲六時二十五分(崎)講演 祖先の映ずる人類の尾に就て(長崎醫大敎授醫學博士 國友鼎)▲七時三十分(東)講演▲八時(東)常磐津▲八時三十分(大)詩の朗讀 近藤詩集より にたちて(ロ)あゝ大和にしあらましかば(ハ)離別(ニ)海のおもひで(ホ)白すみれ▲八時五十分(大)浪花節 博多の勝次(東山小鶴)

### 翌日프로

▲午後零時五分 俗謠(一)흥타령(二)寒春歌(四)離別歌(五)방아타령(六)樂山道

# 黑頭巾 [50]
尹白南作　李青田畵

## 五、暴崩 (三)

금보를 받고 모여든 각대신들은 영상 유영경의 만도로 초조히 잇든중 대내의 하교를 받으매 더오래 기다릴수없어 급히 대내로 들어가니 한지음에 금호문에서 보교를버린 영상 유가 황황히 들어와 승정원에 잠간 들려 승지에게서 방금 각대신이 대내로 입시하엿다는 말을듣고는 집신을 신은채로 차비문으로 반다름질하여 들어갓다.

「어 대감 이제 들어오시우」

매뒤에 떠러저 들어가든 이원익이 영경을보고 인사를하며

「신병을 고치릴도 없으시구려」

하고 수군거렷한다.

「그럴리도 없으려니와 대좌하는위인이 이시밤도 빠르한지온」

하며 이원익을 뒤에 남기고 앞으로 거러갓다.

이때에 대내로 들어간시하들은 원임대신이 원익을 비롯하야 이덕형, 이항복, 윤승훈(尹承勳)유영경, 기자헌(奇自獻)심희수(沈喜壽)허욱, 한응인, 그리고 도승지 유몽인 주서김 시양(注書金時讓)등이엇다.

상감께서 병상 안쪽에는 중전을 비롯하야 상궁내인들이 옹위하고잇엇다.

상감께서는 원 자리에 누어계시지아니하고 다만 눈을 감으신채 이르서 방바닥에 그냥 누어서 정명하신지 이미 오래인듯하며 옥체위에는 용포옥대를 덮어잇엇다.

여럿은 기가 콱 질리어 아모말도못하고 다만 고개를 숙이엇는데 유독 유영경만이 비장한 얼굴을 들어 좌우에 느러선 내인들의 얼굴을 쭉 훑어보다가 저편뒤에 서서 잇는 개유 김상궁의 얼굴과 마주띠자 영경의 눈빛은 점점 험악하게 변하여간다 금시에 그의 입에서 무슨말이 나올지모를지경에 이르럿다.

한즉 이덕형은 그눈치를 빨리보고 나즈막한음성으로 그러나 힘잇는 어조로

「여보시오 예비에 부칩어부인지수(不絶於婦人之手)라하여 사람이 죽으매 부인의 손에 아니하는것이니 청컨대 부인들은 물러처시오」

하니 느러서잇든 내인들은 전부가 스스로 물러나가고 말엇다.

한응은 물러나가는 내인들의 발자국소리가 사라지자

「우리들도 조용히 물러나가서 기다리심이 어떠하오 다시 소생하실 상서가잇을런지도 알수 없지아니하오」

하매 그말에 따라 여러대신들은 조용히 물러나와 빈청(賓廳)에모이엇다.

한응의 생각에는 상감마마의 기식이 끊나섯도 급병같으니 경솔히 운명하섯다고 떠드러 황황히 굴것이 아니라는 것이엇다.

그러나 그것은 한응의 그릇생각이다 선조께서 기침하신지는 벌서 각여전이엇다.

남은 아수 어두어 비칭 방안에서는 서로 얼굴을 알어보기 어렵게 되어잇엇다. 여러의 가슴속도 역시 어두어드는 밤파같이 캄캄하엿다.

벌감하나이 초人불을 켜들고 들어와서 여럿이 앉어잇는 가운대에 놓고나갓다.

너른방에는 찬바람이 휘돌고잇어 초人불이 이리저리 그러는대로 벽에 그리어진 사람사람의 그림자는 몹시이어진다.

여럿은 초바간에 이러한 대상을 당하리라고는 기회 상상하고 잇엇든 일이지마는 이렇게 속히 당할줄은 누구나 헤아리지 못하엿든니만큼 슬픔보다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어이없어하는 낯으로 서로 묵묵히 바라보고 앙앉든 이엇다.

유영경은 영상의 책임이라느니보다 약방제조의 중임을 겸하여 약의 올럼에대한 직접의 책임이 잇는 사람이라 자기가 문밖에 대죄하고 잇든 동안에 일을 무러보고도싶고 조사하여보고도 싶엇다.

초조를 느끼며 유는 이러나 승정원으로 들어가려할 지음에 승전 김봉(承傳金鳳)이 대내로서 이리로 향하야 나오는것과 만낫다.

「무슨 동정이 보이시오」

하고 유는 슬픔이 섞인목소리로 무러본다 가래가 목에 걸린듯이 음성이 잘나오지않는다.

「다시 문정이 보이지 아니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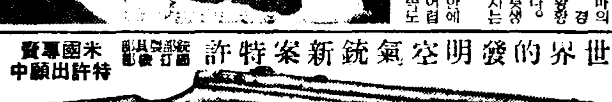
이소리를 간에서 드른 여러 중신들은 일제히 곡하기를 시작한다.

## 消息

◎平山正祥氏(咸興法院檢事正) 管內巡視次二十九日咸興來着

## 會議

一、金有麟牧師除名의件
一、洪原區牧師休職의件
一、牧師候補者金殷奎氏除名의件
一、金瑨承牧師信川教會視察派遣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米國專賣特許出願中
空氣銃 綿打機 製 利善式綿打機製作所 電話一〇九番 振替京城一四七八六番

皇太子殿下御降誕奉祝紀念鍾 朝鮮振興社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四七 電話光化門一五四一番 振替口座京城九〇九七番
大型 直徑五寸 高五寸 十圓 中型 直徑五寸 高四寸 七圓 小型 直徑三寸 高三寸 五圓

百圓確實成功法 京城本町三 振替京城一八六二七
募集 京城本町四丁目 寶文堂
恩給 鄭商會

金ㅅ高價買入 株式會社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平壤府旭町三三 平壤出張所

訃告 金章煥氏夫人金命順氏以宿患今月廿八日(陰十七日)午後三時於京城府壽昌洞一〇三自宅別世玆以訃告 永訣式 八月一日午前九時自宅에서 發靷 八月一日正午 葬地 東大門外 [illegible] 昭和九年七月二十九日 夫 金章煥 [illegible]

東亞日報中學洞購讀請求所 中學洞十二番地 崔學基運動具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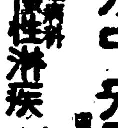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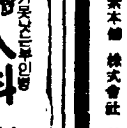
產婦人科 醫學博士 橋本吉藏 京城府明治町

團成社 大邱夏期訪問 大公演 大邱劇場에서

대극성광목

第二劇場 松竹키네마 天龍下れば 浮世의激流

泄瀉·腹痛 헤루푸 宮內省御用達



特 婦人科 麗水中央醫院 院長 女醫 設 性病科 慢性疾患

食後의 유쾌 근강의근본 味の素 아지노모도 음식을 맛잇게먹고 난후에 유쾌도 각별하지만 이런식사는 근강의 근본이된다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 槿域十三道에서모인 姙母大懇談會盛況！

## 律動遊戲講習會終了를機會하야 本社學藝部主催로昨日午後에

## 그地方의자랑、興味津津한餘興

### 童心과慈愛의나라를展開

寫眞說明 盛況이룬 懇談會場(上圖)은 律動講習會修了式과 祝辭하는 本社社長宋鎭禹氏(下)律動遊戲의光景

### 興味津津한 재비뽑기、웃음소리는場內를진동

### 奇拔新案의마처내기

### 자미잇는 대첩필 만드는법

한번 만들어 보십시요

### 幼稚園에서본 그地方이야기

#### 가지각색의十三道風物 (上)

淸津 高陸子氏

鎭南浦 朴玉鄕氏

新川 金敬植氏

神戶 徐英彩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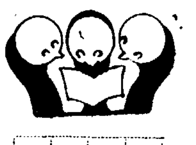
### 海外異聞

#### 제二세검투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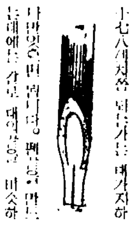
#### 우수한아동에게 메달을주는로서아

### 家庭常識

#### 7 간장물이옷에묻엇을때



### 三南水재를걱정하는어린이



신문에 시골서 물이 만어 그럭케 불상하게 주엇다지요. 정말 불상해요. 나도 눈물이 납니다

수송공보 一二 洪性福

### 무당이야기

### 思想上害毒 (六)

"모든것은 다 제八字야"

金正實

### 紙上病院

### 新刊紹介

◆新家庭 八月號

### 第三回 夏期手藝講習會

一、會期 八月一日부터十日까지 每日午前九時부터十二時까지

一、場所 光化門通同女子技藝院 【本社隣】

一、科目 ◇刺繡—東洋刺繡、佛蘭西刺繡等 ◇編物—千草絲、兒童帽子、例ㄴ等等 ◇手工—조화와리본、銀紙製花等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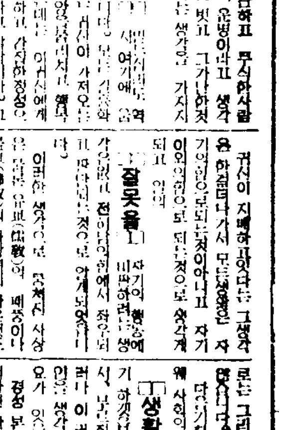
一、申請 七月三十一日까지 同技藝院으로

一、講習料 二圓、一、材料費 一圓以上三圓

一、講師 進明女高 鄭■■氏。朝鮮女子技藝院 張■■氏。朝鮮女子技藝院 張田枚氏。朝鮮女子技藝院 金慶■氏。

主催 朝鮮女子技藝院

後援 東亞日報社學藝部

# 胃腸病의 エンブリオ療法

興味잇는胃腸藥의今昔史

## 當時에名藥「貴人藥」

## 胃散時代

## 草木이자라는힘을藥에서

## 엠부리오療法의效果